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종중 송덕재 준공기념식 거행



테이프 커팅

제막식

추밀공파 정헌공계 목사공 종중(회장 권영익) 송덕재(崇德齋) 준공기념식이 10월 29일 오전 11시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 185-57에서 150여 명이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유회당 종중 이사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주요 참석자는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전 추밀공파회장,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영익 목사공 종중 회장,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행완 대종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권기용 월포공 종중 회장, 권낙원 만회공 종중 회장, 권오경 송재공 종중 회장, 권오영 초려공 종중 회장,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익찬 대사헌 종중 이사장, 권충원 사평공 종중 회장, 권용석 감역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창순 이관공 종중 회장, 참의공 종중 권호준, 목사공 종중 권희중, 권인원, 권오인 종원 등이다.

목사공(牧使公) 권박(權搏, 1607~1661. 20世)은 추밀공파 정헌공 왕후(王煦)의 후손이다. 세계도는 다음과 같다. 추밀공 수평(守平, 10世)-충헌공 위(魏, 11世)-문청공 단(坦, 12世)-국재공 보(溥, 13世)-정헌공 왕후(王煦, 14世)-밀직공 중귀(重貴, 15世)-부윤공 숙(肅, 16世)-좌윤공 순(循, 17世)-판관공 실(實, 18世)-참의공 령(齡, 19世)-목사공 박(博, 20世)

권영익 목사공 종중 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도 쌀쌀한데 송덕재 준공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종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실의 계절 뜻깊은 날에 송덕재 준공식을 갖게



권영익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되고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하다. 원래 재사는 1981년 지어서 덕계동 76-81에 있었는데 작년 10월에 도로 부지로 수용되어 이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사헌 종중의 협조와 배려로 대사헌공과 목사공 묘소 바로 앞에 부지를 마련하여 송덕재를 건축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후손된 도리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대 회장과 종친들께서 애착심을 가지고 공고히 다져 놓으셨다. 우리는 후손된 입장에서 선대의 뜻을 잘 받들어 더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

송덕재를 건립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써 주시고 특히 소장 중인 족보와 고서 2500여권을 기증해주신 권석원 유회당 종중 이사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건축에 힘써 주신 이윤복 사장께도 감사하다. 종중 행사 때마다 늘 애써주시는 안태조 여사와



내외빈

종중 대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 이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송덕재를 건립할 수 있었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은 축사에서 종사라 함은 모름지기 선조의 일을 계승하고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다. 목사공 할아버지께서 훌륭한 재사를 마련하도록 하여 오늘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조의 억에 경의를 표하고 목사공 종중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행운과 화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영익 회장은 송덕재를 건축한 이윤복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서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과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등은 테이프커팅을 했다. 권영익 회장과 권낙원 만회공 종중 회장 등은 송덕재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일행은 주회 측이 마련한 점심을 먹고 떡과 타월을 선물로 받고 헤어졌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년 추밀공 추향제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추밀공파 파조 추밀공(樞密公, 휘 수평守平, 10世) 추향제가 10월 19일 10시 30분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 177번지 추밀공 단소 일원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권병선 창화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권용주, 권순호 매헌공 종중 고문,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권영익 목사공 종중 회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낙원 만회공 종중 회장, 권용학 오현공 종중 회장, 권길행 오현공 종중 사무국장,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수용, 권순구 대종회 상임위원, 권병길 대종회 부회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오달 편집위원, 권선출 대종회 이사 등 원주, 강릉, 충주, 음성, 대전, 양주, 서울, 성남, 고양, 시흥 등지에서 15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했다.

서울 종친들은 8시 40분 지하철 광화문역 8번 출구에서 대형버스 2대로 출발했다. 버스에서는 kbs에서 이덕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출연하여 한국 최초의 족보 안동권씨 성화보 관련 방송과 Btv에서 방송된 본관사수 등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이동했다.

추밀공 세향에는 초헌관 권용학 오현공 종중 회장, 아헌관 권영정, 종헌관 권오주, 대축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등으로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추밀공 세향을 마치자 일행은 충헌공 단소로 이동하여 권영부 집례의 흥기에 따라 세향을 봉행했다. 이어서 202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권오돈 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 각지 멀리서 추향제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훌륭한 조상을 두어서 오늘날 후손들이 성황을 이루며 향사를 지낸다. 좋은 일이다. 참석하신 후손들이 외에도 많은 후손들이 있는데 시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한다. 헌성금도 많이 내주셔서 고맙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추밀공파종회에 회관이 없는 실정이다. 안동권문에서 추밀공파 후손이 무려 35%를 차지한다. 회관 마련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신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본다. 건강 챙기셔서 내년에는 더 많이 더 즐거운 얼굴로 뵙게 되기를 기원한다고



추밀공 향사 초헌관 권용학 오현공 종중 회장, 대축 권정택 정헌공 종중 회장



충헌공 향사

말했다.

권경일 사무처장은 보병 제60사단 50주년을 기념하여 안동권씨 대종회와 추밀공파종회가 협조하여 권율부대에 기념비를 헌정한 사실을 보고했다. 특히 권영선 고문께서 770만원을 헌성하여 지난 7월 31일 안동권씨, 초계면씨 등 권율부대 관련 문중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성대하게 거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8월 26일 이치대접제에는 대형버스 1대를 대절하여 서울에서 30여명이 참석하고 안동권문에서 총 80여명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파주 단소에는 320미리의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유실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나 수로에 관을 매립하는 등 보수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결산보고는 10월 31일 회계연도가 만료되면 감사를 받은 후 3차 회의 결산안이 승인되면 전 회원에게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비와 헌성비 보고에서는 정간공 종중(회장 권병돈)에서 1억을 쾌척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종원들은 모두 박수로 고마움을 표했다.

종원들은 정기총회를 마치자 주회측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고 귀가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추밀공파 정헌공 추향제 봉행

추밀공파 정헌공(正獻公, 왕후, 14世), 밀직공(密直公, 왕중귀, 15世), 부윤공(부윤공, 숙, 16世) 추향제가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현석재(玄石齋)에서 후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권정택 정헌공 회장을 비롯하여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경일 추밀공파 사무처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충원 참의공 대의원대회 의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영익 목사공 종중 회장, 권선출 만회공 사무국장, 권석원 전 정헌공 종중 사무처장, 권용학 오현공 종중 회장, 권길행 오현공 종중 사무국장, 권석행 오현공 종중 감사, 권병길 대종회 부회장, 권용택 정헌공 종중 사무처장, 권태환 후손 등이 참석하였다.

권정택 정헌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가 많이 내려 길이 질퍽하고 도로까지 유실되어 도로공사를 끝냈으나 또 비가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부득이 대사헌공 재실에서 향사를 봉행하게 되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근각지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종원들은 정헌공 초헌관에는 권태훈, 아헌관 권용학 오현공 종중 회장, 종헌관 권성호 양주시민축구단 단장, 대축 권정택 회장으로 분정하여 헌작하였다. 밀직공 초헌관에는 권오갑, 아헌관 권희중, 종헌관 권영동으로 분정하였고, 부윤공 초헌관에는 권오훈, 아헌관 권동안, 종헌관 권오영으로



정헌공 추향제

분정하여 향사를 봉행했다.

목사공 종중(회장 권영익)에서는 참석자들에게 '송덕재사(崇德齋舍) 준공 기념식' 안내 팸플릿을 나누어 주면서 10월 29일 목사공(牧使公, 博, 20世) 선조의 송덕재사 준공식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권행완 편집국장

대종회 귀중본

권오철 (35세 부정공파 화은공계, 한류문화원 대표)



는다.“天生才不以地闊而豐富”)라는 구절은 획기적인 권문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4. 두 태사(太師) 후손으로서의 자부

안동의 권김(金樞) 양대 성씨는 모두 삼태사(太師)의 후손으로, 천여 년간 대대로 이어지고 향촌 중에서는 총절과 문장으로 이름난 자가 많았다. 권여재(權麗齋), 김구재(金樞齋) 등이 있다. 이들은 국난 시 총절로 이름나고, 평소 학문과 예의로 향촌을 교화하였다. 여기서 구한말까지 안동권,안동김의 태사묘 위치 문제로 싸움질 하던 스토리는 보이지 않는다.

5. 향손의 도덕·문학적 업적

향손들은 각기 문장(文章)과 덕행(德行)이 빼어나고 학문·서예·의학·시문 등 여러 분야에서 인재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향안(鄉案, 명단)과 사제(社祭, 제사), 도상(圖像, 표식) 등으로 남은 흔적이 많으며, 그 기록이 국내 명문가와 대등하다.

6. 향손과 국가질서

향리 제도는 주례(周禮)·한대(漢代)의 관속제에서 연원한 것이고 즉, 향손의 근본은 공적 행정의 일원이었다. 조선조에 이르러도, 안동 향손들은 단순한 잡역이 아니라 의(義)·충(忠)의 담당자로 인식됐다.

이와 같이 이 서적이 주는 의미는 크다. 대종회에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새로운 기풍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 권경룡은 검교공파로 그 의미가 매우 큰 인물이다.

영주종친회와 삼봉연구원 양촌 권근 삼대묘소 참배



영주종친회 회원 양촌 삼대묘소 방문

영주종친회(회장 권중수) 회원 30여 명은 28일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참배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은 안동권문의 족보지시 등 사시지문(四始之門)이 모두 추밀공파에서 유래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나라와 표전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양촌 선생이 명나라에 자청해서 가서 명태조 주원장이 제시한 시제를 시로 쓴 응제시에

주원장이 감동하여 어제시를 지어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표전문제가 자칫 외교문제로 크게 비화될 수 있었으나 양촌 선생의 지혜로 해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 건국 초에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제작의 책임자였다고 소개했다.



삼봉연구원 회원 도통사 참배

이어 수레의 못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9일에는 삼봉연구원(원장 김장환) 회원 35명이 양촌 삼대 묘소를 참배했다. 권오협 회장은 이방원에 의해 선조교에서 격살되어 간신이 된 정몽주를 양촌 선생이 태종에게 상소하여 충신의 화신으로 거듭나도록 한 역사적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참배를 마친 일행은 도통사(道統祠)를 방문했다.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은 도통사에는 국제 권보(菊齋 權漚), 역동 우탁(易東 禹奭), 동암 이진(東庵 李瑱), 이재 백이정(霽齋 白頤正), 매운당 이조년(梅雲堂 李兆年), 덕재 신전(德齋 辛殿), 노당 주적(露堂 秋適), 근재 안축(謹齋 安軸), 경재 안보(敬齋 安輔) 등을 봉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